



mhee4617@hanmail.net

## '한 도시 한 책읽기 운동' 시범사업 실무담당자 박미희 사서

**Q** 우리 협회와 함께한 '한 도시 한 책읽기 운동' 시범사업이 2003년 5월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이 종료되었지요. 그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대 효과,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A** 지역의 모든 시민들이 함께 한 권의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활발한 대화 분위기를 만듦으로써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공동체 의식 제고 및 지식기반 사회 분위기 조성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 도시 한 책읽기」 시범사업을 통해 이와 같은 지역문화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적인 확산을 통한 문화 주도적 도시 이미지 부각, 지역문화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국의 다양한 계층에서 서산에 관심을 갖고 도서를 기증하기도 하고 유명 저자가 무료 강연회를 해 줄 정도의 서산시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시민들의 반응은 “수년동안 ‘동화’를 읽은 적이 없다. 이 책은 동화가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내게 상기시켜 주었다. 아이들과 토론꺼리가 생겨 세대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대화의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고 하며 기쁨을 감추지 않더군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며 제 스스로는 큰 위안을 삼았죠. 제가 결코 헛된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Q** 올해도 사업을 계속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A** 금년 2004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도서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개선 해야 될 사항을 참고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선정도서를 선정함에 있어 시민들이 읽고 토론하고자하는 희망 도서를 자유롭게 추천하여 의견을 수렴, 도서선정에 반영 할 것입니다.

**Q** 사업담당자로서 '한 도시 한 책읽기' 시범 운동의 매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처음 접하는 일인만큼 설레임과 두려움이 많았지만 이 운동을 추진하면서 그 느낌을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신선한 충격, 상큼한 풋사과를 한입 베어 물은 듯한 느낌"이라고 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시고 떨어지만, 그 풋풋함이 입안에 감들 때의 상큼함. 그런 느낌 있잖아요. 누군가 가지 않은 길을 처음가보는 외로움과 거기에서 느끼는 고독함도 있지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처음 시도한다는 행복감이 고독함보다 크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신나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Q** 서산 시민들의 독서율,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는 어떤 편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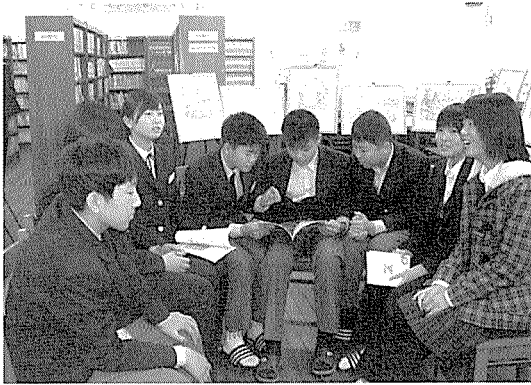
**A** 관주도적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 이 운동의 바람직한 성공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2개월 동안 많은 시민들이 황선미의 『마당을 나온 암탉』을 읽고 토론하였고 비록, '한 도시 한 책읽기 운동' 과 같은 새롭고 광범위한 프로그램의 성공을 측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상당한 도서대출과 판매수치(시내서점 4곳 : 약1,000권. 2003년 11월말 현재), 지금도 꾸준한 도서관매량을 볼 때 높은 프로그램 참여율 및 긍정적인 시민의 반응은 전국 최초 시범 사업임에도 프로그램들이 대단한 성공을 가져왔다고 평가합니다.

**Q** '한 도시 한 책읽기 운동' 시범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요?

**A**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연초부터 계획이 있었던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웠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행정자치부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국고지원인 관계로 집행에 어려운 점(예를 들면 강사료의 경우 현실과 맞지 않는 지급

# interview

## interview



기준 등)이 있었고, 기존의 도서관 인력구조를 갖고 업무량이 늘어나게 된 상태였기 때문에 담당인력이 크게 부족했어요. 사서 2명이 담당했었는데, 기존 본연의 업무와 함께 일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코디네이터가 있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코디네이터의 경우, 공무원과의 업무 권한 조정 등의 문제가 또 남아 있어요.

**Q** 서산시립도서관의 경우 첫 시도니 만큼 준비하시면서 한계점이나 보충할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A** 시범사업이어서 서산시, 서산시립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등이 각각 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사전 조정 등의 기회가 적어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서관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시의 다양한 행정조직과 단체장 등의 지도자그룹을 대상으로 한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전체구성원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2~3차례 그러한 기회를 가졌으나, 실제 참여로 이끌어 내지는 못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러한 참여가 쉽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서 지역 단체장들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나 시립도서관이 주도하는 행사라는 인식이 있어 이번 사업에 있어 민간단체들의 일정한 참여의 한계가 있었어요. 즉, 관 주도 행사라는 인식 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한 것은 일정한 성과를 가져오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교육청의 협조를 확보하지 못한 때문에 교사 등의 사업 참여나 학교 내에서의 추진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반드시 교육청과의 협조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산시에는 시립도서관 이외에도 2개의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소속 도서관들은 평생학습 업무 등으로 인해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지는 못하는 당면한 현실에서 향후에는, 사전에 한국도서관협회 등이 도서관들간의 협조체제 구축에 적극 관여했으면 하는 생각들을 나누었어요.

또한 민간부문에서의 재정지원을 하고자 하여도 공공기관이 직접 이를 수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향후에는 민간조직의 활용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Q** 서산시가 '한 도시 한 책읽기 운동'은 처음 시도인데요. 시범사업을 하신 만큼 다른 도서관에 권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번 사업은 서산시에 새로운 문화운동의 사례를 남겼으며, 시민들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계층들이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가족간 대화도 활성화하는데 확실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중앙 및 지방언론 등의 주목을 받음으로써 서산시를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준비기간이 짧았고, 사업기간도 짧아 충분한 사업 준비 및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한 시와 시립도서관이 주도하는 과정에서 민간 단체나 시민들의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참여도 제고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도서관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도서관이 이 사업을 주도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도서관도 적극 이용하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지역단위 문화 또는 독서운동으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도서관이 사업을 주도함으로써 지속성과 함께 전문성, 사업의 확장성 등이 크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